

7월 국회 ‘쟁점법안·청문회’ 험로 예상

6일 상임위 구성 완료하고 민생입법 논의 시작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산적

국회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6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의 막을 올린다.

국회 휴업이 40일 넘게 지속된 만큼 7월 국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정부 경제정책의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회의의 가동에도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변

주부터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각오다.

특히 ‘공중폭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에는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더불어양성평등기본법,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법 등 주요 사회·환경 법안에 대한 논의도 벌이며 개혁입법 모멘텀을 살려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의 피바람에 와 닿는 민생경

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역시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 등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적극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별도로 원구성 합의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지구 심사를 핑계로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 내부 개혁에 대한 여야 논의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국회의 순항을 가를 변수다.

일각에서는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순식간에 청문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재공전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민감통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아권이 민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을 제기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늦추면 정국은 또다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도 남긴 상태다. 오는 23~25일에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순방마친 文 대통령, 각종 과제 산적 ‘아슬아슬’ 북미협상·암운 낀 경제상황에 해법 찾을까

5박 6일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현재 각종 과제가 산적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 뉴욕까지 않은 경제 상황 등 굵직한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구상을 다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력을 이어가는 게 문 대통령의 첫 과제로 꼽힌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원칙에는 남북미 3자 간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을 놓고 지난 6~7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당시 회담에서는 미국의 ‘일괄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점진적 동시교환’ 원칙이 서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주도해온 ‘중전선언’을 두고도 이견을 노출했다.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중 북미양측을 향해 강한 어조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렉

처’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미 간 흔들림 없는 비핵화 협상을 강조했다.

북미 양측을 향해 ‘비핵화 속도전’을 압박하는 동시에 ‘비핵화 여정’에 있어 문 대통령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되도록 싱가포르와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영국 방문 중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장기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먹구름이 드리운 경제 상황 역시 문 대통령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다. 나아가 지난달 27일에는 규제개혁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연기,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합격자 여성 비율 전년比 11.7%p ↑

국회사무처는 제34회 입법고사 최종합격자 15명을 확정해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발표했다.

직류별 최종합격자는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이며, 최종합격자 중 2차 시험 최고 득점자는 일반행정 이상은(여), 법제 설그린(남), 재경 한지환(남) 등이었다.

전체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만 25.3세보다 다소 높은 만 25.7세였고,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8명, 28~31세가 2명, 31세 이상이 1명, 23세 이하가 4명이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7명으로 작년과 동일했지만, 최종합격 인원이 작년보다 5명 감소해 올해 여성 합격자 비율(46.7%)은 작년(35.0%)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입법고시에는 4천131명이 지원해 27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3차 면접시험은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 10~11일 진행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14일 저녁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민주평화당 8·5전당대회 출정식을 갖고 차기 당대표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정동영의원실 제공

정동영 “강한 평화당 만든다”... 당대표 출마선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민주평화당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5일 평화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민생의 가장 본질인 ‘밥의 정치’, 갑질과 싸우는 진보적 민생주의를 통해 민주평화당을 경제민주화와 제도개혁의 책임정당, 국민의 꿈과 눈물이 있는 현장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어 “청년지도자 300명을 키워 청년정당을 만들고, 광주가 선택한 최경환, 김경진 의원 등 젊은 지도자

와 함께 미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평화당을 민생개혁노선에 기반을 둔 자작민 강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다”며 “전국적인 지명도와 추진력 등 정치적 능력을 갖춘 당 대표가 민생개혁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대표가 되면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기반 합의를 민주주의 체제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향후 민주평화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민주·평화·개혁·민생·평등의 5대

가치를 실천하는 ‘민생개혁노선’,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현장정치’, 당원 주권주의에 기반한 ‘탕평·통합정당’ 등을 꼽았다.

출마선언 장소를 광주로 택한 이유로 “광주는 민주평화당의 근거지이자 심장이므로, 민주평화당이 호남에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전국정당화와 2020년 총선에서 제1당의 가능성은 요원하다”며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서울이 아닌 광주를 출마선언 장소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장상구 기자 rkdtkdm0913@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문희상 부의장에 이주영·주승용...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選) 의원인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문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0대 국회의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또 부의장에 5선의 자유한국당 이주영(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4선의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종료(5월 29일)된 지 45일 만에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문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로 대결과 갈



등에 빠져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누구든 민생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인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역사의 고비마다 나섰던 국민이 선거와 혁명 통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 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다”면서 “개혁·민생입법의 책임은 정부 여당이 첫 번째로 야당 탓을 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완도 · 진도 · 해남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062)227-0084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전액국비) 장애인직업훈련생모집!!
(광주파견교육장)

훈련분야

- 정보분야(정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디자인분야(그래픽디자인, 광고출판디자인, 웹디자인 등)
- ※ 자격증 대비반 운영

입학안내

- 입학자격: 구직등록 장애인 / - 모집시기: 연중 수시

전형방법

- 입학 선발평가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 ※ 취업성공패키지

단계	내용	수당
1	상담, 직업능력평가, 구인역량강화프로그램	150,000원-250,000원
2	직업훈련	월 최대 284,000원
3	집중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최대 150만원 (취업 후 근속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

입학문의 Tel. 062)371-7711(광주파견교육장)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9-4(코스모스 빌딩 3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광주파견교육장**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국토의 실핏줄
생각을 살립니다